

# “땅 파서 못을 만드니 그 노고 얼마나 클까”

### 제주대박물관 '제주의 물'전 물 관련 고문헌·탁본·민구 의도동 우물 유적은 3D로 미래자원 물의 가치도 제시



저지리의 '수감고귀현기념비' 탁본.

“땅을 파서 못을 만드는데 30일 동안 사역을 살피시니 그 노고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돈을 싫어하시니 비석을 세워 본반네(臺地爲澤 三旬視役 何以酬勞 非金是石).”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는 이같은 한문 비문이 새겨진 빗돌이 있다. 1932년 4월 20일 저지리 향원(鄉員)이 세운 '수감고귀현기념비(水監高貴現紀念碑)'다. 물이 귀했던 제주섬의 현실을 보여 준다.

제주대학교박물관(관장 오상학)

이 저지리 기념비 등 제주의 물에 대한 역사 자료와 변천사를 담은 특별전을 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제주의 물'이다. 상수도 보급으로 소중함을 잊고 지냈으나 근래 강정정수장 사태에서 확인하듯 필수제로 일상과 함께해온 제주 물의 어

중문 광배기 는 일대 수로조성 계약 문서(1918년, 개인소장), 장전리 공동정호기지(共同正浩基地) 때매문서(1936년, 장전마을회), 어승생저수지 개발 구상도 등 수자원을 활용한 물 개발 역사를 들여다봤다. '제주 미래자원, 제주의 물' 편은 제주 물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한 물 관련 콘텐츠로 삼양동 셋도리탕의 하루(영상), 조천 용천수길, 미술 작품 등을 배치했다.

제와 오늘을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4부로 짜여졌다. '물이 있는 곳, 삶의 터전이 되다' 편에는 '외도동유적지 우물' 3D영상과 '영주지', '탐라지', '완당집' 등 고문헌 자료를 통해 조선 시대까지의 물에 관한 역사 기록을 소개했다. 제주에 분포하는 물 관련 비석 탁본 10점도 나왔다. '트렁크나뭇물질레 가사주'란 이름으로 물팡과 물허벅, 촌향과 물부조 문화 등 소중한 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던 제주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유물도 전시했다. '제주가 품은 물, 자원이 되다'에는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다. 단체 관람과 해설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마련된 전시로 제주도개발공사도 후원하고 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11월 9일부터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전시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754-2243.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 제주미술사 정립 미술인과 미술관 손잡다

### 제주미술제조직위원회 제주도립미술관과 공동 '제주동인' 제주미술제

작품을 소품 위주로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술동인 등 미술 단체를 중심으로 해방 후 제주미술사를 수집, 전시하는 기획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전시는 '제주동인의 시작', '동인에서 협회로', '서예특별전' 3개로 짜여졌다.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 발족을 시작으로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동인과 협회로 발전해온 제주미술사를 온·오프라인 전시로 보여준다.

1991년 시작돼 25회째를 맞는 2020 제주미술제가 제주미술제조직위원회(위원장 유창훈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장)와 제주도립미술관 공동 기획으로 치러진다. 이후 작가에 예술감독을 맡아 중견 미술단체 회원

이반 미술제는 '제주동인(濟州同人)'을 주제로 1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도립미술관 1-2기 기획전실, 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 상설 장리석기념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관을 이용하고 전시 기간도 두 달 동안 잡혔다.

제주동인의 시작은 '제주 최초'란 수식어가 각각 따라붙는 현대미술 동인 '관점동인', 청년작가 동인 '돌맹이회', 민중미술 동인 '그림패 보름코지', 지역연고 동인 '산남화',

여성미술인 동인 '에프왈화'의 어제와 오늘을 작가 인터뷰, 현장 작품 전시 등으로 담아낸다. 관점동인과 보름코지는 현재 해체된 동인이다. '동인에서 협회로'는 제주를 거점으로 5년 이상된 동인과 제주미술제조작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한라미술인협회 등의 작품을 아카이브와 영상 전시로 풀어낸다. 서예특별전 역시 서예단체 작품을 영상 전시로 선보인다. 제주미술제는 민선 7기 문화분야 공약 중 하나다. 2017년부터 격년으로 컨퍼런스(홍수해)와 전시(찍수해)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쏠리

#### 박물관 어린이 비대면 교육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창의야 나랑 놀자-꼭꼭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꼭꼭 박물관'은 전시 자료를 학예연구사가 소개하고 강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1월 16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등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 감물염색 파우치 만들기 등 교육 키트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로 신청 후 접수하고 있다.

#### 제주시 어린이 시인학교

제주시는 문화도시사업 프로그램으로 김석운 가옥을 활용한 문화공간인 화북동 수눌당에서 이달 7-8일 제주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한다.

이반 시인학교엔 김룡, 이안, 나비연, 송선미 등 동시작가 4명이 어린이들과 시를 읽고 쓰고 나누며 일상에서 시심을 키우는 문화 창작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참가자는 제주착한여행 홈페이지로 신청 후 접수하고 있다.

#### 동네극장 직장인 연극 교실

세이레아트센터가 '동네 극장을 꿈꾸는 연극 교실'을 연다.

제주 거주 3년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극교실에선 기초 이론 수업, 신체 감각 훈련, 호흡·발음·발성 등 기초 실기, 즉흥극·상황극·모노로그·다이얼로그 등 기초 실습, 연극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워크숍 공연으로 짜여진다. 참가자는 이달 5일까지 이메일(sayre21@hanmail.net)이나 페이스북 댓글로 신청받는다. 문의 010-2689-8911.

#### 미래문화발굴단 시민 모집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이달 6일까지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미래문화자산발굴단 시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래문화자산은 등록문화제는 아니나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원을 뜻한다. 시민 참가 그룹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서귀포 105개 마을 내 미래문화자산 발굴, 현장답사, 기록과 작업을 벌인다. '문화도시 서귀포'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다. 문의 767-9505.

### 고재만의

#### 제3자의 기호-비

<27>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누님-하르바지영 강이 반찬에 밤 먹구정 허덴마슴.”  
즈네 골맨. “알았저. 대야에 물 7득 담곡 강일 그레 둥그라.”  
하르바지 골맨. “즈네야- 강이 반찬 멩글쟁 허엌구나. 고치영 찰지름도 놀테주이. 마농도 뵈얏 나시민 좋으켜.”  
즈네 골맨. “예-하르바지. 강이영 콩이영 뷰아서 흘거라부난 허술 지들려사 허켄게 마슴.”  
하르바지 골맨. “기여게, 경후디 오맹이가 안 췌려져저. 올레에도 웃고, 아이가 어디레 가신고. 즈네야 쉬멍쉬멍 허엌시라.  
오맹이 좇아바사 허켜. 나 저 폭낭 이신 신작로 더레 갖당으켜.”

#### \* 제주어 풀이

- \*강이(강이,강이,기) : <이름>게.
- \*먹구정 허덴마슴 : 먹고싶다고 해요.
- \*멩글쟁 허엌구나 : 만들려 하고 있구나.
- \*뵈얏(뵈다): <움직>절구나 방아에서 쌀 따위를 췌어 가루가 되게 하다.
- \*나시민 조으켜 : 놓았으면 좋겠다.
- \*올레(올래) : <이름>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서 올레의 입구엔 어긋돌이 놓여있어 여기서부터가 입구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방돌'이 놓이기도 함.
- \*쉬멍쉬멍(침침 허엌) : <어찌>쉬멍쉬멍.
- \*쉬멍쉬멍 허엌시라 : 천천히 하고 있어라.

고재민 화백

## 김강훈 작가 '제3자의 기호-비' 개인전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둑해지면 물 아래 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찰나,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진다. 바다 속 돌고기와 똑같이 낚싯대를 드리운 이도 비를 맞는다.

제주 김강훈 작가의 '제3자의 기호-비(雨)'는 이같은 풍경을 적어놓은 짙막한 작가노트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의 만물은 너나없이 동등한 법, 김 작가는 비오는 밤에 그 이치를 깨닫는다.

지난달 26일 시작돼 11월 13일까지 돌담갤러리(제주시 중앙로 KEB 하나은행 지하1층)에서 진행되는 이 전시엔 캔버스에 아크릴물감과 레진

을 사용해 그려낸 그림들이 나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에 바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려앉은 비는 주변의 풍광을 삼켜버린다. 우리는 온전히 비의 리듬에 몸을 맡기거나 먼 우주에서 날아온 액체 방울이 하강하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김유정 미술평론가는 “우리의 인식대로라면 인간의 느낌으로 사물에 작용하는 객관적인 자연현상들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겠지만, 김강훈은 오히려 감정이입을 배제한다”면서 “제3의 작용을, 그 느낌을, 그 순간의 감정대로, 육구대로 드러낸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창립 56주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공무원 건강검진기관  
예약문의 : 740-0200

특가 암·건강검진기관

AED 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09-증-110064호

## 3.0T MRI

- MRI(자기공명영상)**  
뇌졸중 및 각종 뇌질환 진단  
뇌졸중 및 뇌경색의 진단 및 뇌종양, 뇌퇴행성질환진단, 뇌혈관검사가 가능하며 동맥경화에 의한 뇌혈관 협착 및 뇌동맥류 등 혈관질환 진단도 가능합니다.  
진단 : 뇌종양, 뇌경색, 혈관폐색, 혈관 협착 및 뇌동맥류, 뇌졸중진단
- MRA(자기공명 혈관영상기법)**  
혈관 영상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입체영상을 획득하여 뇌혈관질환을 진단합니다.
- 간MRE**  
만성 간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간경화를 진단 및 평가하는 자기공명영상에 기반한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뇌경색**  
뇌혈관폐색 등으로 인해 뇌의 일부가 괴사

**뇌출혈**  
뇌혈관 동맥류 혹은 중양 등으로 인한 뇌혈관 파열

**간암**

**폐장암**

**복부장기 MRI**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제주)**  
예약 및 결과문의 (064)740-0200